

지역 소식 통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
‘15% 할인 · 월 100만원’

정읍시가 9월부터 정읍사랑상품권 사용의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월 구매한도 100만원, 보유한도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시에 사용처가 부족했던 면 지역의 결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을 정식 사용처로 추가했다. 할인 혜택을 키우고 결제 지도를 넓혀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전통시장·농촌 소비까지 견인하려는 전략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2019년 도입 이후 지역 내 소비를 견인해 왔다. 지난해 600억원 규모가 전액 조기 소진될 정도로 호응을 얻자 시는 올해 발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키워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할인·한도 상향이 더해지면 시민 제각각 혜택은 한층 커진다. 예컨대 월 한도 100만원을 구매하면 즉시 15만 원을 아끼고, 부부가 각 100만 원씩 마련하면 가계 한 달 생활비에서 최대 3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할인율 15%로 확대

고창군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고창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해 할인판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2차 추가경정예산 기반의 국비지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고창군에서 지급하는 ‘고창 군민활력지원금’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 고창사랑카드 모바일(고창사랑페이) 형태로 판매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총 70만원이다.

확대된 15% 할인율은 9월부터 적용되며, 구매시 10% 선할인에 고창사랑카드 결제시 5% 후 캐시백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지난 8월 22부터 고수, 등 10개소의 하나로마트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본격 추진

부안군, 장애인 역량개발 · 평생학습 참여 기회 보장 지원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보장하고, 자아실현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사업비 6억3000만원으로, 부안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8명을 선정해 1인당 350만원 상당의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한다.

해당 바우처는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 형태로 지급,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로 온라인(보조금24) 또는 주소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학습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자는 2025년 9월 중 개별 통보되며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을 우선순위로 한다.

단 타 지역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나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이용권은 선정자 명의의 NH농협카드로 지급되며 기존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고 미보유자는 신규 발급을 통해 수령하게 된다.

사용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이 불가능하다.

또 교재비만 단독 결제하거나 전자기기·사은품 등 비교육 목적 사용은 제한되며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 및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장애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립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8973억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민생회복 소비쿠폰, 군민활력지원금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창군이 자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8973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예산보다 251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인당 20

만원씩 지급되는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려운 군민의 생활에 도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추경은 정

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과감하고 신속한 민생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개회하는 제3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안형 B-루키즈 지원사업 현장 견학 실시

권익현 군수, “현장 경험 창업 밑거름… 청년 온라인 도전 지속 지원”

부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7일 부안형 B-루키즈 지원사업 교육생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소재 (주)필우티앤씨 물류본부를 방문해 온라인 이커머스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교육생들이 실제 온라인 판매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견학은 AI 기반 판매 프로세스, 물류·재고 관리 시스템, 재고 기반 비즈니스 구조와 수입 절차, 위험 최소화 전략, 운영 데이터 분석, 카테고리별 사업 의사결정, 실제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학습이 이어졌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교육생들을 직접



배웅하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번 B-루키즈 사업과 현장 견학도 그 과정의 하나다. 실제 물류 현장을 체험하는 경험이 창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군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

부안형 B-루키즈 지원사업은 AI 기반 청년 온라인 셀러 육성을 목표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주)온곰(대표 이규환), (주)필우티앤씨(대표 엄상필) 등 현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강의를 맡으며 플랫폼 지원, 1대 1 컨설팅, 실무 도구 제공 등 이커머스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함께 제공한다.

총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규모로 교육 특전으로 최대 2050만원의 사업 비용을 단계별로 지원해 청년들이 실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우중 추진단 사무국장은 “이번 견학은 청년들이 온라인 창업의 현실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9개 주민자치회, ‘2025 주민총회’ 마무리

정읍시가 7월 31일부터 8월 27일까지 9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2025년 주민총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주민 투표로 내년도 마을사업을 확정했다. 마지막 일정은 시기동에서 마무리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해 직접 실행하는 주민대표 조직이다. 시는 2021년 내장상동·수성동 2곳에서 시작해 현재 8개 동과 영원면까지 총 9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각 주민자치회는 올해 초부터 분과회의, 주민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을 거쳐 의제를 다듬었다. 총회에서는 이 의제들을 주민과 함께 토론했고, 표결해 내년도 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김장김치 나눔행사 △생태환경 개선 활동 △우리



동네 작은 소방서 설치 △추석 명절 소외계층 반찬 나눔 △장수사진 촬영 △아나바다 장터 △우리동네 가족사진관 △찾아가는 아동발달방 등으로 복지·안전·세대공간·생활편의를 고르게 아우른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5개 읍·면 이장단 현장 간담회 마무리

정읍시가 7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15개 읍·면을 돌며 이장단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습 침수·배수 불량·경로당 노후 물품 교체 등 70여 건의 민생 현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폭염과 물발성 집중호우가 겹친 여름, 행정과 주민을 잇는 이장들과 함께 재난 취약지 점검과 생활 현안 해법을 현장에서 찾아보는 평가다.

간담회는 각 읍·면 관내 식당에서 진행됐다. 단순 민원 청취를 넘어 무더위 대응과 집중호우 대비를 핵심 의제로 삼아 재난 취약 구간 긴급 보수, 배수 체계 정비,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와 이용 환경 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와 의견은 부서별로 즉시 분류해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시는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불량 구간을 정밀 점검해 고위험 지점부터 보완하고, 경로당에는 노후 냉·난방기와 편의물품 교체, 안전 점검을 병행해 어르신 이용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된 70여 건의 건의사항은 현장 확인 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신규 원어민보조교사 연수 운영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27일 관내 초·중학교 및 고창영 어체험학습센터에 신규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원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EPIK)의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채용되어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지닌 양질의 인력으로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관내 초·중등학교와 기관에 배치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조기 적응을 돕고 교수·학습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는 △효율적인 협력수업 운영 방법 △다양한 수업자료 개발 및 활용



△한국어와 한국 학교 문화 이해 △수업 동기 유발을 위한 교수 전략 등을 주제로 운영되었으며,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또한 고창교육지원청은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6개월간 ‘멘토링’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 영어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 간 협력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